

손해보험에 있어서 위험관리 활성화 방안

신 수 식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한국보험학회 회장

1. 위험관리의 손해보험

위험관리는 개인, 조직 또는 기업이 일상적인 업무환경에서 경험하게 되는 위험을 통제하려는 노력의 일부이며 보험제도는 여러 가지 수단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위험관리의 수단에는 위험 회피, 위험 경감, 위험 분산, 위험 이전 등 여러 방법이 있다. 위험의 처리 수단은 이상과 같은 방법 이외에 위험을 보유하거나(자가보험) 재무적 방법, 즉 손실 발생 후 지급을 위한 자금 조달(자금 차입)은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위험 이전의 전형적인 방법은 보험회사에 위험을 이전시키는 것이다. 위험처리를 위한 수단 가운데 보험에 의한 방법을 선택할 경우 보험회사로서는 위험선택(underwriting)의 문제가 있게 된다. 위험선택이란 보험가입 신청자가 제출한 가입 청약서를 중심으로 보험회사가 대상을 검토하여 인수여부를 판단하는 행위를 말한다.

위험선택의 목적은 보험회사가 좋은 위험을 인수하여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데 있다. 만약 어떤 보험회사가 인수한 대부분의 위험이 좋지 못하여 손해를 본다면 그 보험회사는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보험회사가 지나치게 양호한 보험대상만 인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보험회사의 사회적 사명의 입장에는 문제가 된다. 보험회사는 위험선택과 관리를 위하여 독립된 부서를 두고 있는데 기능상으로 보아 이 부서의 역할은 마케팅, 투자, 손해사정 등 다른 어느 부서보다도 그 비중이 크다. 이것은 위험선택 및 관리의 중요성이 보험회사의 영업수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손해보험회사는 가계보다는 개별 기업의 위험인수에 중점을 두고 있다. 기업에서 위험관리의 대상은 내부적 위험으로 각종 배상책임위험, 재무위험, 조직관련위험이 있다. 재해 및 사고위험은 자연재해,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이 있으며, 경영외부위험으로는 정치적 위험, 경제적 위험, 사회적 위험 가운데 상당 부분이 보험의 대상이 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위험관리를 위해서 다양한 위험재무기법과 위험통제기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보험은 여전히 기업의 위험관리에서 중요한 수단이며, 위험전가 수단의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것은 위험이 대규모이거나 기업의 생존에 위협을 줄 수 있어서 기업 자신이 보유하기 어렵

고, 반면에 보험 기술의 발전으로 기업이 직면하는 거의 대부분의 위험이 보험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위험이 무조건 보험인수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고 그 인수절차, 조건, 인수 후의 위험분산, 인수가격의 산출 등 잘못이 있을 때 그 보험회사는 치명적인 손실을 입게 된다.

보험시장에서 계약의 인수경쟁이 아무리 치열하여도 부적절한 조건하에서의 계약 인수는 보험회사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한다. 다른 사람의 신체와 재산상의 위험관리를 대신 책임지고 있는 보험회사는 무엇보다도 가격리스크, 준비금리스크, 이자율리스크, 신용리스크 등 재무리스크가 큰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적절한 관리대책이 필요하고 특히 감독기관은 이 점에 대해서 감시와 감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모든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위험이 무조건 보험인수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고 그 인수절차, 조건, 인수 후의 위험분산, 인수가격의 산출 등 잘못이 있을 때 그 보험회사는 치명적인 손실을 입게 된다.

재무리스크는 자산운용 리스크라고도 한다. 여기서는 시장리스크, 신용리스크, 유동성리스크가 포함된다. 금리, 환율, 주식가격의 변동으로 인한 보유자산의 가치하락은 시장리스크의 내용이 될 수 있고, 신용리스크는 거래 상대방의 파산으로 채무이행이 불가능하여 운용자산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이며, 유동성리스크는 보험금, 만기환급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 현금부족으로 보유자산을 매각 또는 차입함에 따르는 손실위험이다.

마지막으로 경영리스크는 위의 리스크를 제외한 업무, 법률, 전산 등 경영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위험이다.

우리나라 손해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는 종래 대형물건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재보험의 강제출재 등으로 인하여 육감, 다른 회사에서 취하고 있는 방법의 모방 등 평면적인 방법에 의존하고 있었다. 따라서 1990년 이전까지는 리스크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의 확보 없이 리스크관리를 등한시 하고 있었다.

1990년 이후 감독당국이 보험가격, 자산운용, 준비금 등 지급여력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보험시장 개방, 보험가격 및 재보험 자유화의 추진 및 IMF로 인한 경제 금융환경의 변화 등으로 종합적인 리스크관리의 중요성이 크게 인식되고 있다. 또한 감독 당국은 담보력 강화, 조기경보제도 실시, 경영평가를 통하여 일정 부문 리스크관리를 요구해 왔으나 지표관리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보험사업은 무리한 판매경쟁으로 불량위험이 내재된 계약을 다수 보유하면서 이른바 Cash-flow 중심의 언더라이팅이라는 나쁜 관행에서 쉽게 탈출하지 못해 왔다.

2. 리스크 관리 실태와 문제점

보험회사의 리스크는 크게 세 가지 즉 보험리스크, 재무리스크, 경영리스크로 분류될 수 있다.

보험리스크는 가격리스크, 준비금리스크, 예정이자리스크, 신용리스크가 포함된다. 가격리스크는 보험료 산출에서 각종 위험률이 낮게 책정되거나 사업비 등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 준비금리스크는 지급준비금을 적정하게 적립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위험이며 보험회사가 도산되는 경우는 대부분 그 원인이 여기에 해당된다. 신용리스크는 재보험금 회수불능이나 미수채권의 회수불능에 따른 위험이다.

IMF의 영향으로 손해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는 크게 달라져야 한다는 인식의 확산과 감독 당국의 지침시달이 계속되어 왔으나 영업우선의 경영방침 속에서 리스크의 계량화, 리스크의 질적관리, 리스크관리 기법 및 시스템의 미비, 리스크관리 수단 부족은 단기간에 시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다.

1998년 회계연도 수입보험료의 감소를 처음으로 경험한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은 전통적인 일반손해보험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1990년 이후 급증하고 있는 장기보험 및 개인연금은 IMF로 인한 고금리와 높은 해약률을 방지하기 위한 무리한 대응책으로 유동성의 위기에 직면하였다.

이상과 같은 문제는 2000년 4월부터 기업연금의 판매, 보험요율의 완전 자율화가 고질적인 모집질서의 문란 속에서 실시되고, 요율이 순보험료 산출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언더라이팅 리스크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손해보험회사들의 자산운용에서 유가증권 비중이 과거보다 높아 가격변동 리스크가 크게 노출되고 있으며, 계약연계대출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고 대출 및 신용리스크의 증가세는 금융권의 총체적인 부실의 여파로 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채의 리스크도 문제가 되고 있다.

한편,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특정 재벌그룹에 속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부실대출의 소지는 항상 예상되는 문제이며, 최근 재벌측의 금융소그름의 편성조류와 외형적인 그룹분리과정에서 보험회사는 증권, 투자신탁 등과 더불어 새로운 그룹으로 편성되면서 큰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손해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은 장기저축성보험 부분이 60%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IMF직후 해약방지를 위한 고금리상품의 판매는 예정이 자율리스크의 노출정도가 증가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최근에 와서 손해보험회사

들의 리스크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매우 높아지고 있으나 리스크관리 수준 및 기법은 아직 초보단계에 있다.

3. 개선방향

손해보험회사들의 리스크관리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앞서 우리가 자주 모방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실태에 대해 잠깐 살펴보기로 한다.

지난 30년 동안 미국 보험회사(640개) 지급불능의 주요 원인은 지급준비금 부족 및 부적정 요율(34%), 급속한 성장(20.2%)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이외의 원인으로는 사기행위(10.3%), 자산의 과대평가(9.2%), 새로운 영역 확대(6.6%), 재보험 회수불능(5.2%), 거대재해(8.5%), 계열사 부실(6.1%) 등이 지적되고 있다.

미국 보험회사는 리스크관리 기법으로 위험기준 자본금(Risk Based Capital, RBC)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원래 보험회사의 지급불능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회사가 당면하고 있는 위험에 비례한 자본금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서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RBC제도의 목적은 지급불능 가능성이 있는 회사를 조기에 발견하여 도산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데 있다. 손해보험 RBC제도는 자산, 신용, 언더라이팅리스크로 리스크를 구분하면서 리스크 계수를 고려하여 각 리스크를 계량화하고 있다.

일본의 대표적인 보험회사인 동경해상의 리스크관리는 경영상의 광범위한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이 회사는 리스크를 경제적 리스크, 인적 리스크, 신용 리스크로 구분하고, 보험리스크의 관리측면에서 대규모 자연재해 위험에 대비한 비상위험준비금 및 특별위험준비금의 적립을 통한 위험대책관련 재보험관리를 매

우 중요시하고 있다. 또한, 자산 및 신용위험의 관리를 위해 독자적인 신용등급제도와 총여신액 관리제도의 시행 및 시장위험의 관리를 위한 ALM¹⁾과 VaR²⁾기법 체계구축이 동경해상 위험관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과 일본 등의 선진국 손해보험회사의 위험관리 사례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각종 리스크를 인식, 평가, 측정하는 시스템의 토대가 구축된 가운데 전사적 입장에서 독립적인 리스크관리 전담조직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증권회사는 시장의 일시적인 호황을 맞이하여 특히 공대출신(전자, 통신 부문)을 대거 스카웃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이들 산업의 주가평가에 대한 기술적, 기능적 측면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손해보험에서는 전통적으로 리스크 관리상 대형공장시설, 항공기, 선박, 석유화학, 발전소 등의 위험인수를 위해 은행, 증권산업과는 달리 공대출신이 일부 채용되고 있었지만 스카웃 형식은 아니었고 보험과 관련이 적은 이공계 출신도 적지 않았다. 오늘날에 있어서는 리스크관리가 이상과 같은 전통적인 수단 이외에 가격, 준비금 및 신용리스크와 관련되는 전문인(Actuary) 뿐만 아니라 재무투자 전문가의 역할이 매우 큰

미국과 일본 등의 선진국 손해보험회사의 위험관리 사례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각종 리스크를 인식, 평가, 측정하는 시스템의 토대가 구축된 가운데 전사적 입장에서 독립적인 리스크관리 전담조직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는 리스크를 분류, 계량화하고 체크리스트를 통해 분석하며, 그 관리방법의 대안을 모색해서 실행하는 단계까지 이행하여야 한다.

현실적으로 우리 나라에서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는 감독기관의 관여와 역할이 중요하지만 IMF로 금융감독기관의 통·폐합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위험관리 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보험감독원에서는 손해보험회사 경영실태평가를 양적 평가에서 질적 평가로 전환하려는 노력은 하였지만 종합적 리스크관리 체계구축에는 소홀하였다.

국내 보험회사의 지급여력 관리제도는 자산리스크는 고려되지 않고 언더라이팅 리스크만 고려되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CAMEL 방식의 경영평가제도(Asset Quality)에서 위험가중 자산비율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지만 여기서 사용하는 위험계수는 은행권의 BIS 기준을 원용하고 있어 손해보험회사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통합 이후 은행중심의 각종 기준이 무차별적으로 보험회사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일본과 미국에서 채용하고 있는 RBC제도를 도입하는데는 통계자료의 미비로 위험계수 산정에 어려움이 있고 특히 RBC에 없는 우리 시장의 장기손해보험상품에 대한 리스크의 고려 및 관리도 검토되어야 한다.

현재 부분적인 관리수준에 있는 국내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는 조속히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체계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장애요인인 전문인력 부족, 전담조직 부재, 경영자의 인식부족의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

1) ALM : Asset and Liability Management 즉, 자산과 부채 종합관리.

자산, 부채의 현금 흐름을 분석하여 회사가 이익이 나는지 여부를 정확히 분석하는 한편, 자산과 부채 양면을 고려한 가격 설정 및 투자전략을 도출하는 법.

2) VaR(Value at Risk) : 주어진 신뢰수준에서 일반적인 시장 조건하에서 주어진 기간 동안 기대되는 최악의 손실을 측정하는 통계기법